



#세상 관련 속담 따라쓰기

세상살이에 부딪히며 달라지는 사람의 마음, 원칙이 흔들리는 현실, 돈의 힘과 서로 돕는 인정, 드러나는 행동에 대한 경계를 살
펴볼 수 있습니다.

1 보기

바른 글씨의 뼈대와 획을 눈으로 읽습니다.

2 따라 쓰기

열은 글씨를 연필로 천천히 덮어 씁니다.

3 혼자 쓰기

십자 보조선만 보고 스스로 씁니다.

수록 속담 6개

01	넷가 돌 닳듯	2쪽	04	눈 감으면 코 베어 먹을 세상	5쪽
02	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없다	3쪽	05	돈만 있으면 귀신도 부릴 수 있다	6쪽
03	세상은 각박해도 인정은 후덥다	4쪽	06	이불 속에서 하는 일도 안다	7쪽



연습 6쪽 · 짧은 속담은 한 쪽에 두 개, 긴 속담은 한 쪽에 하나만
칸이 큰 쪽이 잘 쓴 글씨입니다. 서두르지 마세요.

#세상 모아보기
이 주제 속담 더 보기





1 / 6

넋가 돌 닳듯

세상에서 여러 힘든 일을 겪다 보니, 순수했던 마음이 닳아 없어지고 약삭빠르고 깐깐하게 변했다는 뜻이에요.

1 보기

획의 뼈대를 읽기

넋 가 돌 닳 듯

2 따라 쓰기

열은 글씨를 덮어 쓰기

넋 가 돌 닳 듯

3 혼자 쓰기

십자선만 보고 쓰기



2 / 6

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없다

정직하고 올바른 방법으로는 일이 잘 안 풀리고, 오히려 나쁜 방법이나 편법을 쓰면 일이 쉽게 해결되는 이상하고 불공평한 세상을 뜻해요.

1 보기 획의 뼈대를 읽기

되는 것도

안 되는 것도 없다

2 따라 쓰기 열린 글씨를 덮어 쓰기

되는 것도

안 되는 것도 없다

3 혼자 쓰기 십자선만 보고 쓰기



3 / 6

세상은 각박해도 인정은 후덥다

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차가워도, 사람들 사이의 따뜻한 마음(인정)은 여전히 두텁고 많다는 뜻

1 보기

획의 뼈대를 읽기

세 상 은 각 박 해 도
인 정 은 후 덥 다

2 따라 쓰기

열은 글씨를 덮어 쓰기

세 상 은 각 박 해 도
인 정 은 후 덥 다

3 혼자 쓰기

십자선만 보고 쓰기

세 상 은 각 박 해 도
인 정 은 후 덥 다



4 / 6

눈 감으면 코 베어 먹을 세상

잠깐만 방심해도 다른 사람에게 속거나 손해를 볼 수 있을 만큼 세상이 험하고 믿기 어렵다는 뜻

1 보기 획의 뼈대를 읽기

눈 감 으 면

코 베 어 먹 을 세 상

2 따라 쓰기 열린 글씨를 덮어 쓰기

눈 감 으 면

코 베 어 먹 을 세 상

3 혼자 쓰기 십자선만 보고 쓰기



5 / 6

돈만 있으면 귀신도 부릴 수 있다

돈이 아주 많으면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, 심지어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뜻

1 보기 획의 뼈대를 읽기

돈 만 있 으 면

귀 신 도 부 린 수 있 다

2 따라 쓰기 열은 글씨를 덮어 쓰기

돈 만 있 으 면

귀 신 도 부 린 수 있 다

3 혼자 쓰기 십자선만 보고 쓰기



6 / 6

이불 속에서 하는 일도 안다

아무도 안 보는 아주 비밀스러운 곳에서 한 일도 결국엔 다 알려지게 되니, 항상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는 뜻

1 보기 획의 뼈대를 읽기

이 불 속 에 서
하 는 일 도 안 다

2 따라 쓰기 열린 글씨를 덮어 쓰기

이 불 속 에 서
하 는 일 도 안 다

3 혼자 쓰기 십자선만 보고 쓰기

이 불 속 에 서
하 는 일 도 안 다

오늘 따라쓰기를 마쳤습니다.

보호자 확인

